

## 2) 채소 및 과일류

1950년경까지 자가 소비용으로 조금씩 재배하여온 채소류는, 1960년 이후 순천시를 중심으로 서면·해룡면·별량면 등지에서 도시 근교농업이 발달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재배되었다. 인근 도시인 여수는 물론 멀리 서울 등지로 반출하여 높은 소득을 올리는 등 채소 재배의 선진 지역이 되었다.

재배되는 채소의 종류도 다양하였는데 특히 상사면의 수박은 윤작을 하며 황토에 재배함으로써 당도가 높아 유명하였다. 1968년에는 처음으로 오이의 축성재배가 시작되어 점차 비닐 하우스 등을 이용한 가온과 보온으로 축성 및 억제재배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원예가 확대 보급되었다. 1982년에는 농수산부로부터 시설원예 주산단지 지정되었다. 국민 생활수준이 향상되어 점차 다양한 채소류의 수요가 증가하자 양배추·양상추(결구상추)·셀러리 등의 시설원예 재배가 계속 늘어나 전통적인 채식 위주의 상차림을 더욱 풍성하게 할 전망이다. 예로부터 순천 인근 지역에는 감·복숭아·배·매실·살구·자두 등이 널리 자라고 있었으며, 특히 감은 토질과 기후가 알맞아 감나무가 없는 농가가 없을 만큼 유명하였다. 옛날에는 재래종이 재배되었으나 1930년대 이후 단감 종류가 도입되어 재배면적이 해마다 확대되고 생산량 또한 급증하자, 1933년에는 민간자생단체로서 승주군 단감협회가 구성되었다. 근래에는 순천단감영농조합법인 단체가 결성되어 많은 농가가 공동출하와 재배기술 등의 정보교환을 원활히 하고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순천 시내 중심가인 동산약국 부근에서 삼산초등학교에 이르는 양쪽 도로변과 선암사 진입로에 가로수로 감나무를 심어 이 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낙안읍성 민속마을 진입로의 가로수는 민속과 잘 조화되는 살구나무를 심어, 꽃 피는 계절과 수확의 계절에는 순천지역민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풍성한 인심을 더욱 빛내주고 있다. 복숭아는 일제시대부터 재래종이 재배되었으나 1973년 이후부터 월등·황전·낙안면 등지에 개량종이 주로 재배되어, 서울 등지에서도 우수한 품질로 인정받고 있으며 복숭아 통조림 등 가공사업도 활발하다.

배는 1919년 이전까지 재래종 배나무가 자가 소비용으로 심어졌으나 1919년 낙안면 이곡리에 처음으로 개량종 배 과수원이 조성되기 시작하여 해마다 확대, 재배됨으로써 1983년에는 초기에 비하여 약 30배의 증가를 보였다. 이외에도 매실·자두·살구·포도 등이 양조용으로 수요가 늘면서 재배농가와 면적이 증가하고 품질도 많이 좋아졌다. 이에 다른 지역에 공급함은 물론, 순천지역민들은 매일 열리는 중앙시장 이외에도 재래시장인 5일장 두 곳(남부·북부시장)을 통해 신선하고 값싼 과일류를 쉽게 공급받고 있다.